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선 탈출

요렐리스 아코스타

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 개발학센터 교수

원제와 출처: Yorelis Acosta, “Escapar por la frontera colombo-venezolana”, Nueva Sociedad, No 284, noviembre-diciembre de 2019, pp. 83-93.

핵심어: 갈등, 국경, 공공 정책,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서론

국경은 지정학적 세계를 경계 짓는 제한선이자 동시에 지속과 다양한 대리인 및 대표 기관들의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려는 이민자들의 유입과 함께 베네수엘라 국경의 역학구도가 변모했고 이 문제로 부터 우리는 새로운 행위 주체와 문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이와 같은 역학들로 특징 지워지는 국경의 현 상황 속에서의 시민들의 삶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카라카스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맥 속에서 본 연구는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외국으로 나가려는 베네수엘라인의 이동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필자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연구진들이 기존에 수행했던 연구 자료들과 콜롬비아 이민 당국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이용할 것이다.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자료가 부족하기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에서 발간한 자료들 역시 이용할 것이다. 둘째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국경의 동향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필자는 쿠쿠타를 수도로 하는 콜롬비아의 북산탄데르(Norte de Santander) 주와 인접해 있는 베네수엘라의 타치라 주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움직임에 집중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다른 국경 지역에서의 움직임도 살펴볼 것이지만 타치라 주의 이민자 동향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곳을 통한 이민자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¹⁾

필자는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정치적 갈등과 경제 위기 그리고 치안 정책의 부재로 인해 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본 연구를 수행했다. 동시에 필자는 필자의 전공 영역인 사회심리학적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자는 타치라를 다섯 번 방문했고 술리아와 볼리바르를 각각 한 번씩 방문했다.

본 연구는 정성적 민족지학 연구로써 이민자들, 국경 수비대 간부들, 쿠쿠타와 산 안토니오, 산 크리스토팔, 마라카이보와 볼리바르에 거주하는 주민들 및 이 지역을 담당하는 기자들, 이 지역의 상인들과 상공회의소 대표들과의 면담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타치라에서 북산탄데르로 이어져 있는 공식적 루트를 하루 종일 관찰했다. 이 루트에는 산 안토니오와 라 파라다를 연결하는 길

1)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국경선은 총 2,219km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의 술리아, 타치라, 아푸레 그리고 아마소나스 주의 일부가 이 국경선에 접해 있다.

이 315미터, 폭 7미터의 국제 교량인 시몬 볼리바르 국제교가 있다. 이 다리는 국제교들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또한 통과하는 인원도 가장 많다.

이 국제교 외에도 필자는 우레나에 위치한 210미터 길이의 프란시스코 데 파올라 산탄데르 국제교와 보카 데 그리타에 있는 라 우니온 국제교의 통과 인원을 관찰했다. 필자가 관찰했던 국제교들은 모두 강 위에 건설되어 있으며 왕복 2차로로 되어있다. 원래 이 교량들은 차량이 이용을 했지만 2015년부터는 차량 대신 오직 사람들만 오가는 다리로 변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

현재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베네수엘라 주요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²⁾ 또한 이들 학자들은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베네수엘라의 GDP는 50% 이상 감소했다. 이 심각하기 그지없는 경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은 첫째, 수입 급증현상과 경제 장치의 파괴를 가져 온, 환율 통제와 다중환율제를 통한 융통성 없는 환율 정책, 둘째, 가격 통제와 환율 통제 그리고 이자율 통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환경, 셋째, 생산 기반을 수축시키고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2) Leonardo Vera, "In Search of Stabilization and Recovery: Macro Policy and Reforms in Venezuela", en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 40 N° 1, 2017 y "¿Cómo explicar la catástrofe económica venezolana?", en *Nueva Sociedad* N° 274, 3-4/2018, disponible en <<www.nuso.org>>; José Puente, "Venezuela en colapso macroeconómico, ¿Qué se puede esperar?", Real Instituto Elcano, Madrid, 2016; Alejandro Gutiérrez, "Venezuel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the Era of Chavism", en *Latin American Policy* vol. 8 N° 2, 2017.

낮은 국내 및 국제 민간 투자의 흐름을 야기한 체계적인 물수와 국영화, 넷째, 부채 수준의 증가와 거시경제 안정화기금에 적립된 자원의 완전한 고갈 그리고 공공 부채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³⁾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GDP의 심각한 감소는 전실한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 상승 그리고 베네수엘라와는 상이한 경제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볼리비아와 페루의 거시 경제적 성과와 확연하게 대비된다. 이 차이점들 중 첫 번째는 볼리비아와 페루는 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와는 반대로 베네수엘라는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며 사회적인 것을 지향하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⁴⁾ 최근 1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10개국들 중 하나였다. 이것은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경제활동 주체들의 수입이 감소했고 소비 역시 감소했으며 빈곤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국민의 복지 수준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

경제 붕괴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는 실질 임금의 하락이다. 2019년 중반기 실질 최저 임금은 지난 18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현재 최저 실질 임금은 155,000볼리바르로 인상되었지만 식료품 바우처 150,000볼리바르와 합할 경우 월 15달러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최근 수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예로 드는 편이 좋을 것이다.

현재 30개 들어 달걀 한 판이 80,000볼리바르이며 1kg 닭 한 마리가 45,000볼리바르이고 돼지고기와 같은 붉은 색 고기 1kg가 57,000볼리바르이며 세탁 세제

3) J. Puente y Jesús Rodríguez, “Venezuela en etapa de colapso macroeconómico. Un análisis histórico y comparativo”, inédito, 2019.

4) 같은 글.

1kg가 150,000볼리바르이다. 시민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현금의 부족 사태, 전기와 수도, 도로 및 운송 수단의 부족은 베네수엘라의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등록된 자동차의 25%가 부품 부족으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야 데 쿠라에서 100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고 8일 동안 수도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기사와 같은 글을 일간지에서 거의 매일 볼 수 있다. 비야 데 쿠라는 아라구아 주에 위치한 도시다.⁵⁾

아라구아는 베네수엘라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주이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술리아와 타치라에서도 아라구아가 겪고 있는 공공 서비스의 중단 사태 및 부족 현상은 마찬가지이다. 이 두 주는 지난 6년간 밀수와 국경 지역의 가격 차이로 인해 휘발유 배급의 어려움을 두 번 겪었다. 콜롬비아의 쿠쿠타에서는 휘발유 1리터 가격이 1,941콜롬비아 페소(리터 당 0.56 센트)인데 비해 베네수엘라에서는 6볼리바르(0.0003 달러)다. 휘발유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 서비스의 위기는 콜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들에서 먼저 시작하여 다른 주들로 확산되었고 올 해에는 수도인 카라카스에까지 도달했다.

각 생필품 부족현상에 대해서는 다원적이고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필자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 및 수도 배급제가 유발시킨 어려움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전기와 수도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전기 및 전자 장비가 손상되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것들은 교체하거나 수리할 예산이 없다는 점이다. 전기와 수도 배급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율을 증가시키고 병원과 학교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요약하자면 기본 서비스 시스템의

5) Nota de Gregoria Pérez en *Crónica Uno*, 2019년 10월 20일자.

붕괴는 국가와 국민의 빈곤화, 이로 인한 불안함과 고통의 사회심리학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민

몇 년 전까지 이민 수용국이던 베네수엘라는 위에서 기술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민 송출국으로 변모했다. 이반 데 라 베가와 클라우디아 바르가스는 2013년 기준 1,200,000명의 베네수엘라인이 65개국으로 이주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의 4.2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⁶⁾ 이 탈출의 첫 번째 단계의 특징은 베네수엘라를 떠난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고급 인력으로서 미래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인적 자본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민의 흐름은 감소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베네수엘라의 이민자들이 합법적 혹은 불법적인 지역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상황 속에서도 국경을 넘고 있다. 아루바⁷⁾, 쿠라사오⁸⁾와 트리니다드⁹⁾ 등의 카리브해 섬으로 작은 배를 타고 입국을 시도하다 바다에서 익사한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통계 자료도 존재한다. 또 다른 이민자들은 육지를 통해 콜롬비아와 브라질로 이동해 버스나 도보로 다른 목적지를 향하는 방법으로 베

6) Iván de la Vega y Claudia, Vargas: “Emigración intelectual y general en Venezuela. Una mirada desde dos fuentes de información”, en *Bitácora-e*, 2014.

7) 베네수엘라에서 약 30km 떨어진 카리브해에 있는 섬으로 네덜란드령이다(역주).

8) 퀴라소라고 불리기도하며 베네수엘라에서 60km 떨어진 카리브해에 있는 섬으로 네덜란드령이다(역주).

9) 트리니다드 토바고를 구성하는 섬들 중 가장 큰 섬으로 베네수엘라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영연방 국가이다(역주).

네수엘라를 떠난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해외 이주에 대해 가장 상세한 자료는 유엔 난민기구가 조사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4,486,860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는 남미에서 살고 있다.¹⁰⁾ 더욱이 650,000명이 해외 각 국에 망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이 수치는 이민이나 피난,

[표-3] 라틴아메리카 각국 거주 베네수엘라 국민 수

국가	거주민수
콜롬비아	677,313
페루	466,956
칠레	325,025
아르헨티나	171,552
에콰도르	107,052
브라질	97,199
파나마	69,100
멕시코	46,072
우루과이	13,225
도미니카 공화국	7,946
코스타리카	5,105
파라과이	1,111

출처: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민자 통계 조사 자료

〈〈<https://r4v.info/es/situations/platform>〉〉

10) ACNUR, “Situación de los migrantes venezolanos”. 이 자료는 〈〈www.acnur.org/situacionen-venezuela.html〉〉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의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파나마 당국은 약 150,000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자국으로 입국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반면 유엔 난민기구의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민자 통계조사 자료는 69,100명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 이민당국은 자국으로 입국한 베네수엘라인들이 1,447,171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난민 및 이민자 통계조사 자료는 677,313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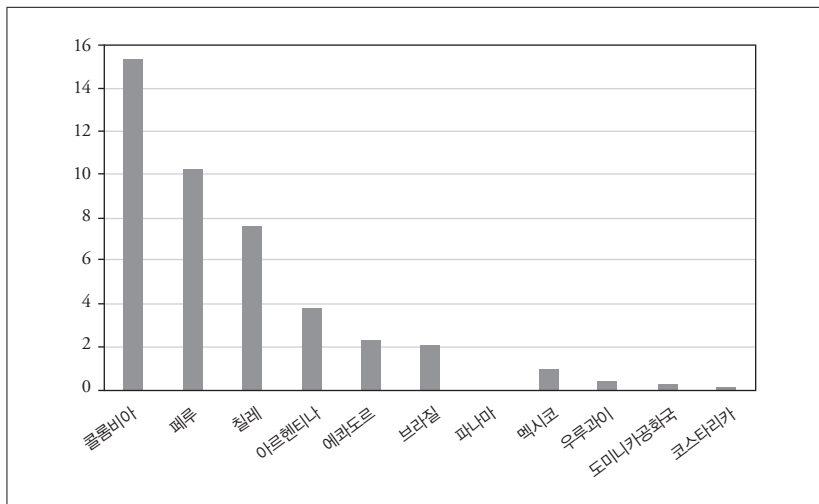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국민들 중 상당수는 콜롬비아를 다른 국가로 가기 위한 경유지로 이용하건 혹은 콜롬비아의 몇몇 도시에 정착을 하건 이 국가로 향한다. 콜롬비아의 쿠쿠타 시에 있어 베네수엘라 난민의 대량 유입은 진정한 비극을 의미했다. 쿠쿠타 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난민이 유입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콜롬비아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의 존재가 필요로 했고 난민을 수용할 수용소 건설이 긴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콜롬비아 이민 당국이 추정하는 콜롬비아로 입국한 총 1,447,171명의 베네수엘라 난민들 중 699,677명은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 정부가 허용한 합법적으로 콜롬비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밀입국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콜롬비아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을 했기 때문이다.

이 불법적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베네수엘라 “보행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도보로 페루나 에콰도르로 입국을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장 취약하며 빈곤한 계층으로 돈이나 적절한 의복, 충분한 음식, 여권도 없이 무작정 베네수엘라를 떠나 인접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익숙하지 않은 상이한 기후나 자신들이 걸어가는 지역의 지형에 대해 그 어떤 사전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페루까지의 3,000km의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상상할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디로 가십니까?”, “얼

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현금은 가지고 있습니까?”, “목적지까지의 길을 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은 “그냥 가는 거지요.”, “목적지에 도달할 때 까지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도보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된 것은 2018년 중반부터다. 초기에는 젊은 청년들만 도보로 나라를 떠났지만 이후 여성들, 아이들, 가족 전체, 심지어는 애완견과 만성질환자 및 장애인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도보로 콜롬비아에 입국하는 베네수엘라인이 급증하자 콜롬비아 정부는 쿠쿠타-보고타 간 도로에 검역소를 설치했고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통과를 제한했으며 시몬 볼리바르 국제교를 통과한 후 첫 번째 콜롬비아 지역인 라 파라다에 어린이

〈그림 3〉 라틴아메리카 지역 거주 베네수엘라인 수(퍼센트)



출처: 저자 작성

들을 위한 백신 접종소를 설치했다. 또한 식사와 기본 위생 서비스를 위한 난민 수용소도 설치되었다. 이 수용소들 중 일부는 민간단체, 개인, 그리고 라 파라다 지역에 있던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설치, 운용했다.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이 지닌 임의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의미한다. 이 불안은 산 안토니오 델 타치라에서 세 명의 군 장교들이 부상을 당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국경이 폐쇄되었던 2015년부터 강조되어 왔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일방적으로 타치라와 콜롬비아의 북산탄데르 주 간의 국경을 72시간동안 폐쇄하도록 명령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국경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다.

2015년 이전에는 두 도시 간의 왕래가 자유로웠다. 하지만 현재는 오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통과가 가능하다. 즉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한 처방전을 지참하거나 가족들이 먹을 기본적인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한 경우에만 통화가 가능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다리 아래나 좁은 오솔길 등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건너간다.

산 안토니오나 타치라 주의 주도인 산 크리스토팔과 콜롬비아의 쿠쿠타는 매우 가깝다. 양쪽 지역은 이전까지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조화”의 공간을 형성하며 공존했다. 이와 같은 양 지역의 공존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잘 알려져 있었지만 베네수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인들이 일을 하기 위해, 학업을 위해, 혹은 단순히 쇼핑을 하기 위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휘발유 밀수와 같은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당국은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우리는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7월에 베네수엘라의 한 여성 단체가 마두로 정권이 콜롬비아의 쿠쿠타로 베네수

엘라 국민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국경 차단장벽을 허물어 버렸다. 2019년 4월 쿠쿠타와 연결된 국제교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증가하여 다리 아래를 통해 또는 비공식적인 좁은 길을 통해 쿠쿠타로 가는 방법이 힘들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당수의 사람들은 다리 위 장애물들이나 차단장벽과 싸우면서까지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로 건너갔다. 이렇게 국경은 의약품, 식료품, 기본적인 생활 용품을 필요로 하는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있어 하나의 유출 통로가 된 것이다.

콜롬비아 이민당국은 매일 35,000명에서 4만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다양한 동기로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로 들어온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동기들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차적인 동기는 콜롬비아로 건너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다시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는 “추”와 같은 국경 통과다. 이같은 행보를 하는 사람들은 콜롬비아 페소나 미국 달러화로 부수입을 얻기 위해 콜롬비아로 건너가 물품을 구매한 후 베네수엘라로 돌아와 이것들을 되파는데 하나의 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던 이러한 상거래가 활성화되자 더욱 큰 상거래가 형성되었고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의 가치와 사용이 콜롬비아 페소화나 브라질 헤알화와 같은 남미 지역통화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베네수엘라의 다른 주들에서는 생필품과 의약품을 사기 위해 콜롬비아와 브라질로 가는 단체 여행상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도시들 간 새로운 루트들이 활성화되고 이 지역들에서 휘발유 부족 현상이 증대되었다. 또한 도로와 국경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기관들의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물품으로 “백신”(뇌물)을 받는 일이 일상화되었다.

2019년 2월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 타치라와 접해있는 국경을 폐쇄했다. 이로 인해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일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비공식적인 좁은 오솔길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들의 밀입국을 돕는 조직들은 어느 지역으로 통과해야 하며 자신들이 어느 지점에 있으며 “순찰 시간”이 언제인지를 알려주었다. 이 공간 속에는 통행을 허용하여 돈을 벌고 물건을 검색하며 통관을 바라는 물품의 양에 따라 지불금을 계산하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이 지배하는 범죄의 실질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국제교를 사이에 두고 양 측에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당국이 주재하고 있었고 이들은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합법적, 불법적 움직임을 잘 알고 있었다. 심지어 국경이 합법적으로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 우니온 국제교 위에서 국경을 지키는 준군사조직원들이 필자의 가방을 열어 검사했다. 국경을 감시하는 준군사조직 중 한 조직은 베네수엘라쪽 다리 끝에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는 필자에게 강제로 가방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살살이 필자의 가방을 검색했고 필자의 소지품이 단지 의류와 책뿐인 것을 알고는 “공짜”로 다리를 건너 콜롬비아쪽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라 우니온 국제교 아래를 통해 콜롬비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보트를 타야하는데 탑승비는 물론이고 무사히 도착했을 경우 하선비도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5,000페소에서 10,000페소(약 2-5달러) 사이이며 성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도 수급에 참여했다. 필자가 관찰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배들에 직접 10명 내의 사람들을 그룹으로 태우고 콜롬비아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배들을 묶어 두고는 밀입국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짐들을 챙긴 채 균형을 유지하면서 강을 건너야만 했다.

필자는 시몬 볼리바르 국제교 아래에서 최악의 상황을 목도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범죄 행위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이 세계에 직면하여, 그리고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범죄자들과 범죄 단체들로 인해 자신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시몬 볼리바르 국제교 아래에는 여권 없

이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의 각 도시들로 향하고자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터미널이 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커피, 담배, 음식, 물 등과 같은 가벼운 물품을 팔고 성인 남성들은 대규모의 물품들과 음식물, 타이어, 자전거, 자동차 배터리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수금과 검수를 담당한다. 또한 가축, 대규모의 휘발유, 자동차, 마약도 이 루트를 통과한다. 그런데 이 대형 거래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보안 담당 기관원들까지 참여하는 보다 복잡한 역학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국경 폐쇄는 비공식적 경제를 활성화했으며 새로운 밀입국 루트가 개척되고 새로운 밀수 물품들이 생겨남에 따라 범죄 집단 간의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2019년에 발표된 베네수엘라 투명성 위원회 보고서는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서의 민족해방군(ELN)¹¹⁾,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FARC)¹²⁾, 인민해방군(EPL)¹³⁾의 존재 및 활동과 이 무장 단체들 및 베네수엘라 조직범죄집단이 어떻게 적어도 베네수엘라의 여섯 개 주에 침투해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필자는 타치라 지역을 다섯 번 방문했다. 방문할 때마다 필자는 마치 새로운 국경지역이 더 늘어난 것처럼 느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불법적으로, 그리고 더욱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콜롬비아로 넘어가는 현상을 목도했다.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은 국경 인근 지역에 머물면서 구걸을 하거나 커피나 물, 사탕을 팔거나

11) 1964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콜롬비아의 극좌파 게릴라 무장 단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며 쿠바 혁명을 지지한다(역주).

12) 1964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콜롬비아의 공산혁명 게릴라 조직. 지방 정부와 민간 시설을 주요 파괴 목표로 삼았기에 콜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과 서유럽 등 서방 진영으로부터 테러 단체로 규정받았다(역주).

13) 1967년에 설립된 콜롬비아의 극좌파 무장단체. ELN, FARC와 함께 콜롬비아 내전의 한 축을 구성했다(역주).

혹은 노숙을 하면서 국경 탈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절망한 시민들은 이들과 국경 지대에서 절도나 갈취 행각을 하는 범죄자들을 구별하지 못한다. 국경 지대에는 매춘과 인신매매 그리고 강제 노동이 횡행하며 아이들은 부모가 일을 하는 동안 길거리를 배회한다.

베네수엘라-브라질 국경을 넘는 경우, 특히 볼리바르주를 통해 브라질로 가려는 경우 콜롬비아쪽 국경 지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브라질쪽 국경 지역은 비록 아르코 미네로 광물특별지구¹⁴⁾와 국경 지역을 통제하는 준군사조직들이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콜롬비아쪽 국경과는 달리 폐쇄되지 않고 여전히 열려있다. 필자가 여기서 “통제”라는 말을 시용할 때 이것은 준군사조직들이 베네수엘라 당국 대표자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군 고위층에 포진해있고 정식 인가를 받은 무역상들로부터 “백신”(뇌물)을 받고 있으며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불법 통행료를 징수하고 법, 보다 구체적으로말해 그들의 법을 집행한다. 이 뿐만 아니라 조직범죄집단간의 처형과 충돌도 자주 발생한다.

또 다른 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위기 앞에서는 불법 행위나 식료품 및 기타 상품의 단순한 구매와 판매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여성들의 머리카락도 구매의 대상이다. 절망과 절대 결핍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하나의 상품인 것이다.

상업 및 무역활동에서의 이 모든 변화들과 불법 경제의 증가, 폭력, 공식적

14) Francisco Javier Ruiz, “El Arco Minero del Orinoco. Diversificación del extractivismo y nuevos regímenes biopolíticos”, en *Nueva Sociedad* N° 274, 3-4/2018. 또한 <<www.nuso.org>>에서 볼 수 있다. 아르코 미네로 광물특별지구(Zona de Desarrollo Estratégico Nacional Arco Minero del Orinoco)는 2016년 2월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특별지구로 지정한 지역으로 천연 자원들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베네수엘라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볼리바르주 북부 지역 대부분과 아마소나스(Amazonas)주 동북지역 그리고 델타 아마쿠로(Delta Amacuro)의 일부분이 이 특별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금, 구리, 다이아몬드, 콜탄, 철, 보크사이트 등 다양한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다(역주).

제도의 허약함, 국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경제 위기는 국경 인근 주의 주민들과 그들의 일상 간의 관계를 변모시켰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는 주민들로 하여금 베네수엘라를 떠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평온함을 바꿔버렸다.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있어 그들의 조국은 고통, 배고픔, 빈곤 그리고 존엄성 있게 삶을 영위할 기회가 소멸된 지옥으로 변한 것이다.

결론

본 논문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수축, 임금 하락, 식료품 및 의약품 부족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악화로 특징 지워지는 최근 몇 년 동안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여러 지역의 베네수엘라 국경을 통한, 특히 타치라 주와 인접한 콜롬비아의 쿠쿠타로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이주는 국경이 처한 현실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은 가장자리도 아니고 하나의 선도 아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형태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출현한 상이한 현실들로 구성된 하나의 끈이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양쪽 모두 시민들의 고통과 불안, 폭력,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의 실종, 공공 기관들의 이중성, 그리고 국민들의 낮은 삶의 질 등과 같은 공통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지역에서의 개인적 경험과 함께 이전에는 공존의 공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폐쇄된 베네수엘라의 타치라와 콜롬비아의 북산탄데르를 가르는 국경에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

그러나 국경 폐쇄는 폭력 문제를 감소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문제들, 특히 부패와 밀수 그리고 국경 지역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야기했다. 국경 폐쇄는 또한 베네수엘라인에게 있어 콜롬비아쪽으로 생필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방수구가 폐쇄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브라질 쪽 국경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국경을 개방한다는 것이 곧 갈등을 종식시키는 않는다. 확실한 것은 지방 정부가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시민 안전에 대한 초국가적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비정상적이며 비정규적인 그룹의 존재는 권력과 폭력의 역학관계를 나타낸다. 불법이 국경선 인근 지역들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광물들이 밀수출되고 있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수수하며 가축과 식료품, 휘발유, 의약품, 자동차와 자동차 타이어 등의 밀수가 이루어지며 젊은 청년들에게는 위기에 처한 합법적인 생산 방법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직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범죄 조직으로 끌어 들인다. 심지어 이들 범죄 조직들은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의 법을 집행하며 어떤 지역에서는 이 지역들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고 시민들과 기업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돈을 요구한다.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는 국경 지역과 그들의 자산에 대한 싸움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동시에 또한 국경의 자유 통행에서부터 시작하여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 앞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 역시 이 싸움에서 패배했다. 국경 지역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부 공무원들과 조직범죄집단 간의 유착 관계가 깊게 형성된 국가에서는 어디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것인가?

심각하기 그지없는 문제들 앞에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양국의 어떤 문제 해결책도 마치 젖은 종이처럼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불법 경제 구조와 국경 지역에서 횡행하는 다양한 비합법적, 비정규적 활동들과 결부된 삶의 도식은 전 베네수엘라로 침투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 모든 요인들로 인해 취약한 국가 구조 속에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인들은 가장 불리하고 위험한 조건 속에서 국외로의 이민의 길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국경을 가까스로 넘은 베네수엘라인들은 곧 콜롬비아(혹은 에콰도르나 페루) 역시 상상하던 곳이 아닌, 기존의 문제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는 곳임을 알게 되며 슬픔과 고독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 지위와 싸워야만 한다.

정동희 옮김